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황대헌-박지원 반칙 악연 '쇼트트랙 페널티 코드' 주목

2023-2024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4·강원특별자치도청)과 박지원(27·서울특별시청)이 잇따라 충돌하며 '팀 킬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이들이 이번 시즌에만 네 차례 충돌한 가운데 황대헌은 세 차례 실격 처리돼 관련 규정인 '페널티 코드'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황대헌은 지난해 10월 ISU(국제빙상연맹)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m 2차 레이스 결승 도중 4위에서 2위로 올라선 뒤 선두에 있던 박지원을 뒤에서 밀치며 옐로카드를 받았다.

또 황대헌은 지난달 16일 ISU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박지원을 인코스로 추월하려다 몸으로 밀어내며 페널티를 받았고, 다음날에는 1000m 결승에서 박지원이 추월을 시도하자 손으로 밀치며 다시 페널티를 받았다.

황대헌과 박지원의 악연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황대헌은 지난 6일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남자 500m 준결승 2조에서 박지원을 인코스로 추월하던 중 충돌이 발생했다. 심판진은 정당한 몸싸움으로 판단을 내렸지만 같은 선수가 네 번째 충돌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ISU의 'Short Track Infringement Language and Code(쇼트트랙 침해 행위 및 코드)'에 따르면 개인전의 경우 페널티는 S(Straight·직선 주로)와 C(Corner·코너 구간), ST(Start·출발 구간), F(Finish·도착 구간) 등 네 가지 구역에서 주어진다.

직선 주로의 경우 아홉 가지 페널티가 주어진다. △아웃 코스에서 인 코스 변경 △인 코스에서 아웃 코스 변경 △팔 이용 진로 방해 △팔로 미는 행위 △뒤에서 접촉 △뒤늦은 추월 시도 △직선 주로 끝에서 아웃 코스로 빠졌다 인 코스로 들어오는 행위 △직선 주로 끝에서 자리 싸움 △직선 주로 끝 아웃 코스에서 충돌 유발 등이다.

코너 구간의 경우 다섯 가지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아웃 코스에서 인 코스 변경 △인 코스에서 아웃 코스 변경 △팔 이용 진로 방해 △팔로 미는 행위 △뒤에서 접촉 등에 주어진다.

출발 구간의 경우 여섯 가지의 페널티가 규정된다. △아웃 코스에서 인 코스 변경 △인 코스에서 아웃 코스 변경 △팔 이용 진로 방해 △팔로 미는 행위 △뒤에서 접촉 △부정 출발이 있다.

도착 구간 역시 여섯 가지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 △아웃 코스에서 인 코스 변경 △인 코스에서 아웃 코스 변경 △팔 이용 진로 방해 △팔로 미는 행위 △뒤에서 접촉 △스케이틀 드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OFF(Off Track·트랙 내부 활주)와 EQP(Equipment Violation·안전 또는 기록 장비 미착용), ASS(Assistance·선수 또는 지도자의 보조 행위)가 있다. V-SR(No penalty for Shared Responsibility)의 경우 두 명 이상의 선수가 페널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 실격하지 않는 것이다.

쇼트트랙 2023-2024시즌은 지난 11~12일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올가을 2024-2025시즌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규정을 공부한다면 보다 즐겁게 쇼트트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nackNews

#쇼트트랙페널티코드

#한규빈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취재수첩

송민섭

취재2부 기자

minsob.song@jnilbo.com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끝나고 검경의 시간이 다가왔다. 광주·전남 경찰은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공직선거법 사안은 수사 종료까지 비공개 방침이 세워져 구체적인 유형별 범죄 종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광주·전남 경찰은 이번 총선에서 100여명의 선거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50건의 위반 사안을 적발·인지·신고 받아 69명을 수사했다. 광주경찰은 이중 35건의 관계자 53명에 대

“당선되면 그만”...선거법 위반 엄히 다스려야

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도 현재까지 69건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105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8건(11명)은 종결처리(일부 불송치) 됐고 나머지 61건의 94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읍)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는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광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광주 서구을) 후보는 민주당 양부남 후보를 흡혈귀 모습을 한 나쁜 사람·검사로 묘사하는 로고송을 표출해 고발당했다.

선거사범은 매년 늘고 있다. 전국적으

로 전체 선거범죄중 5대 선거범죄는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비중이 크게 늘었다. 21대에 비해 22대 경찰 수사 대상자가 331명(24.1%) 증가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해당 안되는 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제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다. 대부분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친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벌금 규모는 더 줄어든다.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벌금 내고 내 후보 당선시키면 그만”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 선거법 위반을 엄히 다스려야 할 이유다.



전일광장 |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링 안에서 잘 싸우는 법

‘어공’이라는 말이 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 세칭이다. 공무원 임용 시험 등 절차가 아닌 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과 임기 동안 그들과 함께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통령, 장관, 단체장, 기관장, 의원과 보좌관, 정무비서, 공기관 연구원 등이 있다. 소위 ‘문민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물’이지만, 늘 내부에 있던 ‘늘공’들의 처지에서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공’이 된 사람들은 그동안 밖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열심히 한 활동가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정치적인 영역에 포진해 있다. 교육계에도 그동안 노조 활동이나 필드에서 집회, 시위, 교섭 등의 소위 필드 전문가들이나 승진을 초월(?)해 교육전문가로서 살아오던 이들이, 어느 날 교육청이나 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선거나 특정 계기로 밖에서 안으로 던져진 ‘개밥에 도토리(?)’들이거나 전문가라는 명분으로 다른 집단에서 스카우트된 자들이다. 한마디로 링 밖에서 사각의 링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시스템 밖에서 체제 안으로 던져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숙명적인 과제가 있는데 필드의 야성을 유지하고 내부 체제를 혁신하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사각의 링에서 글러브를 끼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주먹을 이용해 상대를 타격하여 쓰러트리는 경기를 복싱 경기라 한다. 어느 날 큰 글러브를 끼고 거들먹거리며 나타난 선수가 있으니 언급한 속칭 ‘어공’들이고 시스템 내부로 던져진 자들이다. 밖에 있을 때 하고 링 안에서 선수로 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한 회전을 마치는 공이 울리면 중립지역으로 돌아가야 하고 발로 차도 안되고 머리로 헤딩해도 안되고 특정 부위를 때려도 안된다. 대표

선수라고 뽑아서 보낸 이들은 밖에서 이 광경을 보면서 답답해한다. 아니 공이 울렸다고 싸움을 멈추면 어떻게 하나, 언제부터 그렇게 신사적으로 싸웠나, 들이받아라, 반칙을 사용하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댄다.

결국은 풋 워크나 클린치, 커버링 기술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코피만 흘리고 처맞고 내려오면 링 밖에 있는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적해가지고 싸움이 되겠냐,내가 해도 너보다는 잘하겠면서 소금을 뿌려댄다. 얻어맞고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상대편보다 응원하는 아군이 더 많게 보인다.

링안은 내부의 논리가 있다. 일단 그 논리를 잘 체득하고 내부 논리로 싸워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연후 내부 물을 바꿀 수 있다. 선수(내부자)가 관중(외부자)인척하고 관중이 선수인척 하면 안된다. 외부자는 내부자 고통을 이해하고 내부에서 힘을 잃지 않게 지지해야 한다. 내부자에 유연성의 지혜를 제공하여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하고 내부자는 외부의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며 내부에서 혁명적으로 싸우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내부자보다 더 내부자답고 외부자보다 더 외부자의 야성을 유지해야 한다. 외부자의 임무는 늘 링 안으로 새로운 선수를 들여보낼 준비를 해야 하고 내부자는 체력이 다 되었을 때 내려올 줄 알아야 한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싸운 선수를 격려할 줄 알아야 하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믿어준 외부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이시간 내부자들은 누구고 외부자들은 누구인가. 여제까지 내부자가 외부자가 될 수 있고 외부자가 내부자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선수가 되고 싶은 자는 링의 논리를 우선 체득, 살아남아야 한다. 링 안의 제1 법칙은 무엇일까. 우리는 매일 링으로 출근하고 링 밖으로 퇴근한다.

강력범죄 보호장치 ‘셍테드’ 아시나요



독자투고

과거 경찰청에서 범죄 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개발·배포 했을 당시만 해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조두순·김길태 사건 등 사회문제로 파장을 일자 공동주택 현장설계·지자체 등에서 셍테드(건축환경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조례가 시행됐다. 지금은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폭력·절도)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셍테드가 주목받게 됐다.

셍테드는 도시환경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 발생기회를 줄이고 주민들이 범죄에 두려움을 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해 삶의 질 향상 시키는 종합적 범죄예방 전략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현관 도어락 설치된 건물은 범죄가 43%줄었고 가로등(조명)과 방범용 CCTV 설치된 장소는 야간 강도 등 강력범죄가 16%줄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도시지역 세이프티 존 강화위해 안심 비상벨, 로고젝터(레이저 고보조명), 고성능 CCTV 등 안전 시

설물을 지속 보완·개선 했다.

‘집중 순찰지역’과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고 쓰여진 셍테드 안내판은 밤에도 잘 보이도록 야간 시인성을 높여 제작, 은은한 가로 등 효과도 야간 보행에 도움을 준다.

보행자가 위급상황 처했을 때 현재 위치를 파악해 신고 할 수 있도록 도로명을 각 지역 동(군·리) 마다 붙였다. 해당 위치가 경찰 집중 순찰 구간임을 안내해 주민들의 각종 범죄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범죄예방 활동도 있다. 거리를 걷는 중 방범용 CCTV가 없는 곳에는 지자체 설치 요청을 하고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 비상벨이나 가로등이 고장난 경우 보안 표시판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리·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라는 셍테드를 할 수 있다.

셍테드는 일상 속에서 필요한 예방적 역할을 한다. 경찰관이 보지 못한 범죄지역까지 보충해 주는 만큼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범죄예방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병준(전남경찰청 범죄예방계 기동순찰대 경사)